

김무성·이정현 비주류 극복... 조현아·선동열 여론·팬심에 굴복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맹형인 최다선(7선) 서정원 의원을 꺾고 당당히 원내 과반정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출발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애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큰 틀의 당내 역학관계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보수혁신의 아이콘'을 자처하며 완전 국민경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공천혁명을 주도 중이다. 잠재적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해 이른바 '문무 합작 혁신'을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6만 815표, 49.43%를 득표해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4만611표, 40.32%)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된 이후, 26년 만에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새누리당 의원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고, 한국 정치사의 기념비적 기록으로 남게됐다. 특히 야권의 심장이자, 새누리당의 불모지로 여겨던 전남지역에서 이 의원의 당선은 지역구도 타파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손석희 JTBC 보도담당사장=2013년 5월 JTBC 보도부부 사장으로 부임한 손 사장은 같은해 9월부터 지금까지 JTBC 뉴스 9 주중 진행을 담당하면서 JTBC 보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희미해져갈때도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언론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손 사장은 올해 제13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6월 단행된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의 핵심 인사다. 박 대통령의 의중과 정치철학을 잘 아는 친박(친박근혜)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실

세 부총리'로 불려왔다. 강력한 거시정책 드라이브로 '초이노믹스'라는 용어도 탄생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민생 안정, 경제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5년도 예산안도 범정 시한 내에 처리됐고, 예산 부수법안들도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원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의장=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ITU 전권회의에서 의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7회 연속 이사회에 진출하고 '사물인터넷(IoT) 촉진'과 '커넥트(Connect) 2020' 등 우리나라가 주도한 의제들이 본회의 결의로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ITU 이사회 임시회에서 2015년 이사회 의장으로도 선출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TU 전권회의에 이어 이사회까지 이끌게 됐다.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이 합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IT벤처 1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 지난 10월 1일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를 출범시켜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된 가운데 거대 포털 네이버에 대항할 수 있는 IT업체로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합병법인 출범을 통해 시가총액 10조원대의 IT기업을 탄생시켰다. 통합법인의 최대 주주로 현재 1조7000억원 대 상장 주식을 지녀 재벌총수 보유주식 평가액 8위(재벌닷컴)에 올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내

▷안철수·김한길='세월호 참사'라는 정국에서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연이어 패배를 당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자리를 물려났다.

6·4 지방선거에 앞서 '갑작' 합당으로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이렇다할 전략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대권 후보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직을 사임한 뒤 '집계'에 들어갔고, 최근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김홍수 화백='하모니즘' 창시자인 원로화가로 6월 9일 95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별세했다.

여성의 누드와 기하학적 도형으로 된 추상화를 대비시켜 그리는 등 이질적 요소를 조화롭게 꾸며 예술성을 끌어내는 독특한 조형주의 화풍을 만들었다. 도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장과 서울대 미술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1955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면서 누드를 주요한 소재이자 주제로 삼았다. 귀국해서는 추상과 구상의 조화를 꾀하는 하모니즘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수 신해철=장 협착 수술 뒤 심정지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지 5일 만인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46세라는 이른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죽음은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료 사고 분쟁으로 이어져 의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사회적 질은 가사로 의식 있는 뮤지션이란 찬사와 함께 '마왕'

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김자옥=젊은 시절에는 청순미로, 중년에는 '만년 소녀' 이미지로 사랑받은 배우로 암 투병을 하다 11월 16일 6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연기 생활을 본격 시작해 비련미, 청순미로 데뷔와 동시에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맹활약하며 인기를 얻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그는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로 '공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40대 중반인 1996년 '공주는 외로워'라는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을 통해 코믹하고 귀여운 '공주' 이미지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로 이륙 전 기내 견과류(마카다미아) 서비스 때문에 비행기를 되돌린 조현아의 '판공 회항' 사건으로 쏟아지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비난적격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들끓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사과하지 않고 잘못을 사무장에게 떠넘긴 해명을 내놓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조 전 부사장은 결국 성년 여론과 검찰 수사에 떠밀려 대한항공 부사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선동열 전 기아타이거즈 감독=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국보급 투수였던 선동열 기아타이거즈 감독이 올해 성년 팬심에 의해 사퇴했다. 2012년 고향팀 기아타이거즈 감독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선동열은 '명가재건'과 '투수왕국' 건설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2012년 5월, 2013년 8월, 2014년 8월로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기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선 감독과 2년 재계약을 하면서 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결국에는 선 감독이 안치홍의 임의 탈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팬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결국 감독 자리를 물려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동열



신해철



이정현

17세 유사프자이 노벨평화상...중국 '석유황제' 저우융캉 몰락



말랄라 유사프자이

▷말랄라 유사프자이="탈레반 피격소녀"로 널리 알려진 올해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

파키스탄 출신으로 올해 17세인 그녀는 노벨평화상은 물론 노벨상 전 부문을 통틀어 역대 최연소 수상자라는 기록을 세웠다. 11세 때부터 영국 BBC 방송 블로그에 올린 일기를 통해 여학생의 등교를 금지하고 여학교를 불태운 파키스탄탈레반(TTP)의 만행을 고발하다 2002년 10월 탈레반 무장대원이 쏜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는 데러를 당했다. 영국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녀는 계속되는 탈레반의 살해 위협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총리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르짖었다.

▷제넷 옐런=2월 취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 2010년부터 연준 부의장을 맡았던 옐런 의장은 8년간 재임한 벤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버냉키 전 의장과 함께 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리세션(경기후퇴) 국면에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양적완화(QE) 시행, 초저

금리 유지 등 경기부양 정책을 이끌었다.

▷마윈(馬雲·잭 마)=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 올해 9월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개인 자산이 195억달러(약 20조 4700억원)로 경총 뛰 어 중국 1위 부자가 됐다. 그는 1999년 3월 알리바바를 만든 뒤 15년 만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우는 성공신화를 썼다.

▷장-클로드 융커=11월 조제 마누엘 바호주에 이어 신임 유럽연합(EU) 집행 위원장에 취임했다. 19년간 룩셈부르크 총리를 지내고 지난해까지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수행한 대표적인 EU 인사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원장으로 적임자란 평가와 동시에 개혁이 부족한 구시대적 인물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융커는 최근 룩셈부르크 총리 시절 다국적 기업의 탈세 스캔들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유럽의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받았으나 부결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외

▷저우융캉(周永康)=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 몰락한 중국 '사법·공안'의 차르'이자 '석유황제'로 불리는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처음으로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했다. 12월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당적을 박탈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로 처벌받은 것은 처음이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콜롬비아 출신 스페인어권 문학의 거장. 4월 17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외곽의 자택에서 87세로 타계했다.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의 소설 '백년 동안의 고독'은 세계 35개국 언어로 번역돼 5000만 부가 팔렸다. 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겪은 역사의 리얼리티와 토착신화의 상상력을 결합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소설 미학을 창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유례는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한 멕시코와 고국 콜롬비아에 분산돼 안치됐다.

▷아리엘 샤론=2006년 재선 유세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8년간 혼수상태에서 투병하다 1월 11일 텔아비브 인근의 시바 메디컬센터에서 85세로 타계한 이스라엘 총리. 군 출신의 대표적인 우파 정치 거물로 2001~2006년 총리로 재임하는 등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 활약했다.

특히 이스라엘 건국 후 팔레스타인과 투쟁 과정을 이끌어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경한 태도로 유명하다.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유 키푸르' 전쟁 등에서 공로를 세웠으며 1982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대원을 겨냥한 레바논 침공도 주도지휘했다.

소속 리쿠드당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야세르 아라파트 당시 PLO 의장과 폭력 중단 및 평화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2005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철수'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후 아리엘 샤론



저우융캉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